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이코노미스트들, “연준 금융정책 실수가 미 경제 최대 리스크”
- WSJ: 이번 주 미 경제 관련 일정은?
- WSJ: 이번 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지표 발표 내용은?

[미국 금융]

- Bloomberg: 주택 주택담보 신용 한도 활용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 WSJ: 금값 상승세... 연준 추가 인하 및 중동 리스크로

[미국 생활]

- CNNBusiness: 그레이하운드 버스역 사라지고 있다

[물류]

- WSJ: 미 항만 파업이 미 경제에 타격 준다
- NYT: 항만 파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 CNNBusiness: 항만 파업 길면 바나나, 술, 초콜릿, 체리 부족해질 것

[오일]

- WSJ: OPEC+ 공급 늘리면 유가 약세 예상

[원자재]

- Bloomberg: 이번주 글로벌 원자재 5개 차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포드, 미국 기업들 중 중국 의존도 가장 심해
- Bloomberg: 포드, 무료 전기차 충전기 제공
- Bloomberg: AT&T, DirecTV를 76억불에 TPG에 매각 합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Reuters: Fed's Powell set to speak as economists fret about a policy mistake, election risk****이코노미스트들, “연준 금융정책 실수가 미 경제 최대 리스크”**

-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설문 결과 인플레이와의 마지막 싸움 단계에서 연준이 금리 설정과 관련해 실수를 했다면, 내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는 향후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 비즈니스 경제 전국 협회(NABC)의 경제학자 32명 조사에 따르면 39%가 향후 12개월간 미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금융정책 실수를 꼽았다. 반면에 23%는 미 대선 결과가 가장 큰 리스크, 그리고 똑같이 23%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갈등의 격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
- 한편 파월 의장은 오늘 테네시 내슈빌의 한 협회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과 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Reuters 기사

WSJ: Jobs Friday, Jerome Powell Speech, Nike Earnings: What to Watch This Week**이번 주 미 경제 관련 일정은?**

- 월: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전망 발표, 3분기 증시 마감시점으로 8월과 9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세 기간으로 마감 예상됨.
- 화: 오늘 미 부통령 후보간의 저녁 9시 토론. 나이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 수: 테슬라 3분기 생산량 및 인도분 업데이트 발표 및 레비 스트라우스 실적 발표
- 목: 신규 실업수당, 제조업 지수, 서비스 경제 여건 지수 등 발표
- 금: 미 9월 일자리 보고서로 전문가들은 8월보다 약간 많은 14만4천개로 예상.

WSJ 기사

WSJ: Week Ahead for FX, Bonds: U.S. Jobs Data, Eurozone Inflation in Focus**이번 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지표 발표 내용은?**

- 이번주 미 경제는 일자리 발표가 가장 관심사다. 유로 지역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로존 인플레이 수치가 관심사다.

- 아시아의 경우 구매 관리자 설문 결과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면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 진작책을 발표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특히 미 투자자들은 이번주 금요일 일자리 발표에 따라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인하시킬지 가늠할 수 있다.
- 미 머니마켓은 연준이 올해 11월과 12월에 거의 0.75%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용 측면이 위험할 경우 공격적인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8월 일자리 지표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물론 이번주에 발표되는 ADP 일자리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관심사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More Americans Are Tapping Home Equity Credit Lines, NY Fed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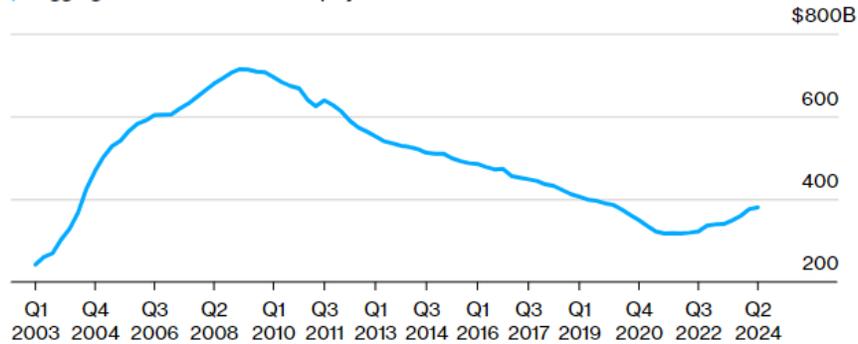
주택 주택담보 신용 한도 활용하는 미국인 늘어난다

- 자신의 낮은 모기지율을 포기하지 않고 주택의 자산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주택 담보 신용 한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 뉴욕 연준이 오늘 화요일 주택 부채와 신용 관련해 발표한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HELOCs로 알려진 주택 담보 신용 한도의 잔액이 거의 13년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2021년 말에 저점을 찍은 후에 20% 상승하는 등 반등하기 시작했다.
- 한편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2분기에는 모기지 신규 대출 건수가 줄었다. 전체 소비자 부채에서 연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자동차 용자와 크레딧 카드 용자의 연체율 비율은 계속 상승했다.

Americans Are Increasingly Tapping Home Equity

Home equity lines of credit are up 20% since the end of 2021

Aggregate balances on home equity lines of credit



Source: New York Fed Consumer Credit Panel / Equifax

Bloomberg 기사

WSJ: Gold Edges Higher on U.S. Rate Cut Expectations, Middle East Risks

금값 상승세... 연준 추가 인하 및 중동 리스크로

- 미 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가운데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금값은 유럽 거래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선물 거래에서 0.4% 상승한 온스당 2천6백78달러 20센트를 기록 중이다.

WSJ 기사

[미국 생활]

CNNBusiness: America's Greyhound bus stations are disappearing 그레이하운드 버스역 사라지고 있다

- 시카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그레이 하운드의 버스 터미널역이 점차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버스 터미널의 리스 기간이 끝나면서 추가로 리스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레이하운드는 터미널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 현재 그레이 하운드 고객들은 저소득층이 많다. 시카고의 경우만 해도 승객의 73%가 연 5만불 미만 소득자이고 반이상의 흑인이며 4분의 3이 소수계 승객들로 이루어져 있다.
- 실내 터미널 역이 없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추위를 견디기 힘들며 바깥에서 환승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버스는 기차역이나 공항이 없는 작은 마을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다.

CNNBusiness 기사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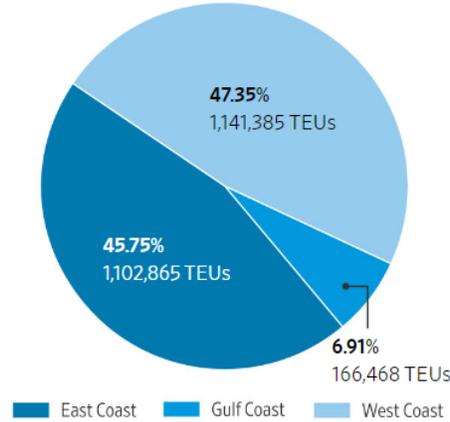
WSJ: A Dockworkers Walkout Could Batter the American Economy and Tie Up U.S. Trade

미 항만 파업이 미 경제에 타격 준다

- 메인주에서 텍사스에 이르기 까지 수십개의 항만 노무자들은 파업을 준비하면서 미 대통령 선거를 5주 남겨둔 시점에서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가로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월마트, GM 등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고 바쁜 홀리데이 시즌에 인플레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일부 수입업체들은 이미 물류에 피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JP 모건에 따르면 파업시 미국 경제는 하루에 38억불에서 45억불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해당 노조인 ILA는 4만5천명의 노무자를 대표하고 있는데 77%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Ports' share of U.S. container imports by region, June 2024



Source: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WSJ 기사

NYT: Here's What to Know About the Looming Port Strike 항만 파업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

- 노무자들은 10월 1일 자정 직후부터 파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메인주부터 텍사스에 걸쳐있는 항만들이다. 이 가운데 뉴욕뉴저지항만도 포함되는데 미국에서 3번째로 분주한 항만이다.
- 당초 분쟁은 6월에 알바마마의 항구에서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술 사용으로 인해 협상이 결려됐는데, 핵심은 임금 이슈다. 현재 노무자들은 시간당 39불을 받고 있는데 노조는 향후 6년간 매년 시간당 5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주측은 연간 시간당 2달러50센트를 희망하고 있다.
- 파업이 시작되면 매일 50억달러의 경제 손실 또는 GDP의 6%가 손실을 입게 된다. 동부와 걸프만 항만을 통과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68% 이상, 컨테이너 수입품의 56%가 중단된다.
- 대통령은 관련 법(1947 Taft-Hartley Act)에 따라 노무자들의 복귀를 명령할 수 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노무자의 업무 복귀 명령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A.F.L.-C.I.O.)는 대통령의 명령을 반대하고 있다.

NYT 기사

CNNBusiness: Expect shortages of bananas, booze, chocolate and cherries if there's a long port strike

항만 파업 길면 바나나, 술, 초콜릿, 체리 부족해질 것

- 동부 및 걸프만 항만에서 파업이 시작되면 많은 인기 제품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업이 길어지면 초콜릿, 술, 바나나, 체리 같은 인기 과일과 심지어 특정 자동차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 연말 쇼핑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체가 연말 쇼핑을 위해 준비하는 제품 70%는 이미 파업이 예정된 항구를 떠났다. 그리고 이번엔 파업 예고 때문에 그 비율이 더 높다.
- 하지만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공급망 및 소비자 정책 담당 부사장 Jonathan Gold는 “하루 동안의 파업이라도 회복하는 데 3~5일이 걸린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지난 2002년 서부 항만에서 있던 11일간의 파업이 정상화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중국 경제]

WSJ: Oil Price Expected to Weaken If OPEC+ Hikes Supply

OPEC+ 공급 늘리면 유가 약세 예상

- OPEC+가 증산 계획을 유지하면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이번주 4% 이상, 한 달 동안 10% 가까이 하락했다.
- OPEC+가 12월부터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생산량 제한을 풀기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 시장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 OPEC+는 10월부터 점진적인 증산을 계획했지만, 9월 유가 급락으로 계획을 두 달 연기했었다.
- 분석가들은 OPEC의 사실상 리더인 사우디가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대 중반 OPEC이 셰일 가스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30달러까지 폭락한 적이 있었다. 분석가들은 사우디가 또 과잉 공급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를 명확히 배제하기 전까진 시장이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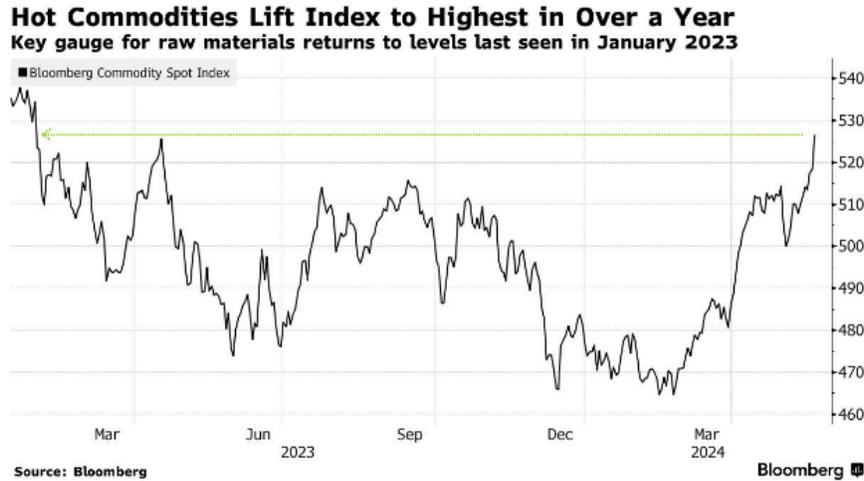
WSJ 기사

[원자재]

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ies This Week

이번 주 글로벌 원자재 5개 차트

- 원자재 지수: 지난주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 공급 차질,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장기 인플레이에 대비한 헤지 수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구리: 뉴욕과 다른 거래소 간의 구리 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짧은 공매도 압박이 원인이었다. 지난주 Comex 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었다.
-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브라질과 미국의 감귤류 작황 악화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체 음료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36년 만에 최악의 오렌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LNG: 수에즈 운하가 예맨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막히면서 LNG 공급업체들이 아프리카 우회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구매자들도 더 높은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 석유: 북반구 여름 연료 수요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모두 원유보단 건강한 프리미엄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프리미엄이 감소해 기존 유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하락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Ford Most at Risk From China Exposure Among 250 American Fi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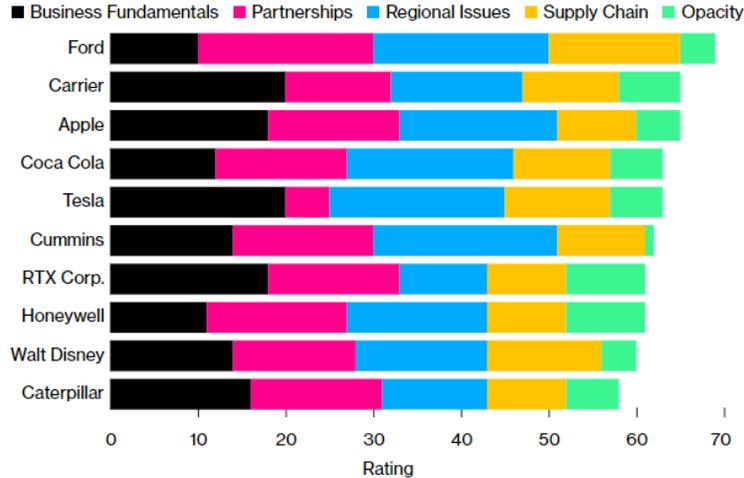
포드, 미국 기업들 중 중국 의존도 가장 심해

-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컨설팅 회사 Strategy Risks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가 중국 의존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미국 기업으로 선정됐다. 포드는 69점을 기록했고, 애플과 에어컨 제조업체 Carrier Global이 65점으로 2위, 테슬라와 코카콜라가 63점을 3위를 기록했다. 점수는 기업의 중국 매출, 중국 및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공급망 리스크 등을 고려해 매겨졌다.

- 포드는 “점수의 유효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Strategy Risks는 중국 의존도와 그 기어이 중국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 중국 경제 위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기업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중국을 기술 및 제약 공급망에서 차단하려는 시도로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ord Tops List of US Companies by China Exposure

Top 10 US firms as per 2023 rankings



Source: Strategy Risks Index Ratings 250

Bloomberg 기사

Bloomberg: Ford Offers Free Electric Vehicle Chargers in Bid to Boost Sales

포드, 무료 전기차 충전기 제공

- 포드가 무료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 판매를 늘리고 주류 자동차 고객들의 전기차 주행 거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포드의 3가지 전기차 모델인 Mustang Mach-E, F-150 Lightning, E-transit에서 화요일부터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 포드에 따르면 전기차 80% 이상이 집에서 충전된다. 포드는 전기차 구매자가 집에서 밤새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제공해 주행 거리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 포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휴대폰처럼 충전하는 것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모든 고객은 1,310달러 상당의 충전기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 등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000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T&T Agrees to Sell DirecTV Holding to TPG for \$7.6 Billion AT&T, DirecTV를 76억불에 TPG에 매각 합의

- AT&T가 DirecTV의 대주주 지분을 사모펀드인 TPG에 76억불 현금으로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 DirecTV는 라이벌인 Dish와 합병을 논의 중이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미국 최대 유료 TV 제공업체가 탄생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美연준 11월에 다시 '빅컷' 할까... '파월의 입·고용보고서' 촉각 ECB도 내달 빅컷 예상...韓 인플레 진정에 통화정책 '피벗'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달에 이어 11월에도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9월 고용 관련 보고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30일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에서 미 경제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그의 언급에서 11월 금리 정책과 관련한 단서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이달 중순부터 파업 중이고, 다음 달 초 대서양과 동남부 연안 항만 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할 9월 고용보고서는 고용시장이 건전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완만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